



## 첨가제의

## 종류가

## 실제로 많은가

### <신 정 재>

납품을 위한 특수합량표에 의한 제품 또는 상품화하지 않은 제품들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되는 제품은 10종 전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 합량에 있어서도 일부 성분의 유무(有無)의 차이는 있으나 합량 자체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첨가제 분야에 있어서는 수년 전에 사료협회에서 의뢰하여 우리나라의 첨가제에 대하여 분석 평가한 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성분표를 작성하여 3~4종으로 종류를 축소함으로써 선택상의 오류는 물론 불필요 성분의 낭비를 막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적정성분표의 공동 작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항생제 혹은 기타 일부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하여 새로이

발족 보장된 동물약품협회에서 전지하게 논의 해결 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반면에 후라졸리온제, 설파제, 구충제 등은 성분함량이 똑 같고 상표 제조자만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후라졸리온제는 후라졸리온 10%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며 설파제는 설파디메독신, 구충제는 피페라진이 대부분이다. 이럴때 어떻게 제품을 선택하느냐 식의 질문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개는 가격 경쟁이 심하여싼 것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려 하나 이 보다는 "쌈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을 명심하고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사료첨가제 혹은 동물약품업계에 붙이고자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 무질서한 제품의 개발, (제품 종류의 나열에 그치는) 등으로 인한 복잡성을 보다 단순화 하기 위하여 각사의 특징적인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각사의 개발품 혹은 특정제품(주제품)을 서로 인정하여 가격의 정상화, 제품의 단순화를 꾀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동물약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생산자의 정상적인 발전의 지름길이라 생각 된다. □□

양계업자나 배합사로 공장의 기싸들이 흔히 말하기를 첨가제나 치료제의 종류가 너무 많아 뭐가 될지 몰라서 구매할때 선택하기가 무척 곤란하다고 한다. 물론 실제적인 면에서는 함량의 차이나 성분의 상이 혹은 유사성에서 오는 복잡성 보다는 이에 수반되는 가격제산(상대적인)이 더 큰 문제가 될 줄 안다.

그러나 성분과 함량차이에서 오는 가격의 차이는 이에 따른 원가제산의 차이로 판매가격의 차이가 인정되며 또 거래되고 있으므로 가격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논의로 하고 다만 종류의 다과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제 품 별	가 지 수
비타민+미네랄제	31
비타민(주요 AD제)	26
수용성 비타민제	10
미네랄제	5
비타민+항생제(수용산)	10
"    (첨가제)	5
항생제(수용산)	26
"    (첨가제)	11
옥시디움제	20
피리메타민제	8
후라졸리온제	17
설파제	17
비소제	11
구충제(내외부)	20
소독제	19

상기 분류표에서 보면 단연 종합영양제인 비타민, 미네랄제와 항생제 제품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비타민+미네랄제인 경우 가지수(31)는 이렇게 많지만 일부 사료공장의

### \* 양계인의 유일한 친구 \*

## 월 간 양 계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우실때 꼭 필요한 증제도입 현황 및 분양현황은 월간양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 1년분 1,500원 □ 반년분 800원

소액환으로 서울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